

상태로 지속되는것 같지 않으며, 저분화된 여포암은 보통의 여포암과 전혀 다른 생물학적 특성 및 예후를 보임으로 치료 방침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 25 —

**Human Papillomavirus 16/18, 31/33/35 in
Verrucous Carcinoma of the Larynx**

*Department of Path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ng-Sook Lee, MD, June-Sik Park, MD* and
Chai-Hong Chung, MD**

Verrucous carcinoma of the larynx is a distinct and uncommon variant of well-differentiated squamous cell carcinoma. The authors hybridized in situ a case of laryngeal verrucous carcinoma with DNA probes to human papillomavirus(HPV) 6, 11, 16, 18, 31, 33, and 33. The DNAs from the verrucous carcinoma of larynx hybridized with mixed probes HPV-16/18 and 31/33/35. In addition, there was an evidence of HPV infection based on hybridization with mixed probe HPV 6/11 in the adjacent papilloma tissue. By in situ DNA hybridization techniques, we clearly demonstrated human papillomavirus(HPV-16/18, and 31/33/35-related) sequences in this neoplasm. These findings suggest the role of HPV 6/11 in the development of laryngeal papilloma and HPV 16/18 and 31/33/35 probably on the progression to and verrucous carcinoma.

— 26 —

두경부암의 면역요법
— Cytotoxic lymphocyte의
세포독성에 관하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최 은 창 · 홍 원 표

암은 여러가지의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재발 혹은 암의 잔존상태가 왕왕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작은 잔존암세포 혹은 작은 전이암세포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암의 치료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도하다. 이에 대한 치료로는 화학요법이 주가 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면역요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면역학적인 치료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 한 방법이 Adoptive immunotherapy로서 자가 암에 대하여 특이한 Killer T 세포를 시험관 내에서 유도, 증식시켜 다시 환자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두경부 암에 관하여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저자들은 두경부암 환자에 있어서 면역요법을 위한 단계로서 상악동암 환자의 자가암세포 및 동종암세포를 이용하여 임파구를 활성화 시킨 다음 그 활성화된 임파구의 증식 및 여러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 과 :

1) Cytotoxic lymphocyte를 암임파구혼합배양하여 유도한 뒤 interleukin-2에 의하여 증식시킨 결과 12일 후 약 30배에 달하였다.

2) 혼합배양에 의하여 유도된 cytotoxic lymphocyte는 말초임파구보다 자가암세포에 더 큰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3) Cytotoxic lymphocyte는 말초임파구보다 동종암세포에 대하여 더 큰 세포독성을 보였다.

4) Cytotoxic lymphocyte를 다시 환자에 투여하는 이른바 Adoptive immunotherapy는 두경부암의 미세 전이 혹은 미세잔존암세포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리라 기대된다.

— 27 —

**Kimura씨 병과 유상피 혈관종의 임상 및
조직학적 재검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안 희 정 · 이 광 길

Kimura's disease는 그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1948년 Kimura가 'unusual granuloma with proliferation of lymphoid tissue'라고 처음 기술한 이래 많은 예가 보고되어 있으며 젊은 남자에서 호발하고 말초혈액내의 호산구 증가증을 동반하는 임상적인 특징이 있다. 한편 'epithelioid hemangioma'(EH)는 1983년 Wells 및 Whimster가 'angiolymphoid hyperplasia with eosinophilia'로 처음 보고하였으며 이들은 Kimura's disease가 이 병변의 late stage라고 생각하였고, 그후 이들 두 질환은 같은 병변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Rosai(1979), Urabe(1987), Googe(1988)은 임상 및 조직학적으로 이들 두질환이 확실히 다른 질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 10년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의뢰된 조직중 Kimura's disease 10예와 epithelioid hemangioma(EH) 3예에 대해 임상적 및 조직학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Kimura's disease는 평균연령이 35세로 8예가 남자에서 발생하였고 EH는 평균 49세로 모두 남자에서 발생하였다.

2) Kimura's disease의 평균크기는 6.6cm, 평균기간은 8년인데 반해 EH는 1cm, 4, 5개월이었다.

3) Kimura's disease중 5예에서 림프절 비대증을 보였고 6예에서 호산구 증가증을 보였다.

4) 조직학적 검색상 Kimura's disease는 전예에서 입파여포 구조를 포함한 염증세포의 침윤, 혈관증식, 조직내 호산구증가를 특징적 소견으로 하며, 간질성 섬유화 혈관주변의 lamellar fibrosis를 보였다. 반면 epithelioid hemangioma는 염증세포 침윤이 적고, 섬유화의 소견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증식된 혈관내피세포의 상피세포화와 "tombstones" 양상이 특징적이었다.

— 28 —

양성 및 악성 갑상선 여포성종양의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진소영 · 조미연 · 주희재
정순희 · 김호근

갑상선 종양중 여포성 종양은 통상적인 조직학적 검사만으로는 양성과 악성간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종양의 정확한 진단은 치료법의 결정, 추후관찰의 참고지표의 설정 등에 매우 중요하다. 근래 갑상선종양에의 면역조직화학적 검색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여 thyroglobulin 염색의 응용에 관한 다수의 보고가 있다. 그러나 thyroglobulin 단독으로 갑상선 기원을 지시할 뿐 종양의 양성, 악성 여부 판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최근 thyroglobulin과 생화학적으로 구조가 유사한 당원단백의 일종인 lactoferrin 또는 ceruloplasmin등이 선상 또는 여포상 분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알려졌으며, 특히 갑상선 종양에 적용시 양성과 악성의 감별이 용이하다고 보고 된바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1987년도 1월부터 1989년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서 진단된 갑상선 여포성 종양 58예를 대상으로 종양의 크기 및 광학현미경적 소견을 관찰하였으며, 이중 22예에 대하여 thyroglobulin, lactoferrin 및 ceruloplasmi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시행하였다.

1) 총 58예중 여포성선종이 33예 여포성선암종이 25예였다. 종양의 크기(직경)는 양성 3.48cm, 악성 3.71cm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우측에서 1.3배 반발하였다.

2) 광학현미경적 소견상 양성과 악성간에 종양구성 세포의 이형성증, 세포분열수, Hürthle 세포의 비율, 주상 또는 고형성 배열양상 정도등에 따른 차이점은 없었다. 피막의 두께는 여포성선종에서는 얇고 고른 반면 여포성선암종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두꺼워져 있으면서, 때로 피막형성이 되지 않은 부위도 흔히 관찰되었다.

3) 면역조직화학적 검색상 thyroglobulin에 대해서는 정상 갑상선 조직중 종양과 근접된 부위의 위축된 여포상피에는 음성이었고, 정상 또는 기능이 항진된 세포 및 교질에는 양성이었으며, 양성과 악성종양에서 모두 양성이었고, 특히 내강에 연한 세포질 침부에서 강하게 염색되었다. Lactoferrin에 대해서는 정상세포 및 양성종양에서는 음성 또는 흔적이었고, 악성종양세포에서는 양성이었으며, 세포막에 따라 더욱 강하게 염색되고 교질은 음성이었다.